

미래먹거리산업 밀그림 마련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표... 드론·탄소·농생명 등 선정

전주시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밀그림을 마련한 가운데 세계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레저스포츠 선도도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드론과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8개 분야, 16개 단위과제, 40개 세부추진과제 등 미래먹거리를 육성할 밀그림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신성장동력산업 8개 분야는 △신성장산업 종합 △드론산업 △3D프린팅산업 △사물인터넷(IoT)산업 △ICT융복합산업(IT/CT) △탄소산업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이다.

특히, 시는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전주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축 △AR/VR 및 전통문화 기반 문화체험 공간 구현을 3대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와 연계해 향후 전주시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육성을 위해 △드론축구 교실 운영 △드론스포츠 체험관 운영 △드론 월드컵 개최 등을 통해 드론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주를 드론 스포츠 선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전주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

축 등 스마트 주차 서비스 제공 △CCTV와 연계한 사용자 예측 시스템 개발 등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제공 △전주시 관광객 맞춤형 셀프관광지도 앱 개발 등을 적극 지원,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전주시의 전통문화·관광·신성장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실증도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한옥마을 등 지역특색 및 다양한 전통문화를 활용해 AR·VR기술 등 IoT산업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AR/VR 및 전통문화기반 문화체험공간 구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전주 일도심 권역에 VR미디어밸리 구축 사업과 연계한 문화·미디어·체험마을을 조성하고, AR/VR 게임·미션형 액션로드 조성 및 인터넷·모바일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을 통해 전주시 문화관광과 연계한 신성장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3대 중점사업 외에도 총 신성장산업 종합, 탄소산업,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총 8개 분야, 13개 단위과제, 31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전주시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융복합 산업 핵심과제 사업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향후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인공지능과 가상·증강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실현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해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또,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와 출연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내·외부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전주시 여건에 부합한 신성장산업 핵심과제 사업화 및 신규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혁신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산업동향과 미래트렌드, 성장잠재력 등 산업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정부의 R&D중장기 투자전략과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19대 분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정책방향을 종합해 전주시 역량과 입지여건을 고려한 산업들을 선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는 사람을 담은 그릇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변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1일 전북도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사드 기습배치 강행 美 규탄한다”

사드반대 전북대책위, “비용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것은 주권국가 침해”

전북도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도둑 배치 강행하고 비용 부담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6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장비 기습 배치한

데 이어 미국은 배치 비용까지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라며 “사드 기습 배치는 대통령 공백 상태를 이용해 국민적 동의 없이 진행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며 “북

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2~5분 안에 남한에 도착하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 안보를 위해 배치하는 사드 비용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것은 한국을 봉으로 여기며 주권 국가에 대한 침해인 만큼 사드 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근 기자

응급실 의사 위협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0월 26일 오전 7시께 전주 시내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처방이 없으니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말에 폭언을 퍼붓고 위협을 가해 10분간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술집에서 2회에 걸쳐 60만 원 가량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폭력 및 사기 전과로 누범 기간인데도 지속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새만금환경청, 임실서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

새만금환경청은 임실 오수휴게소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화학 사고는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의한 도로 위 화학사고는 2015년 21건, 2016년 21건으로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 배터리 절도 6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1일 익산과 전주 시내를 돌며 차량용 배터리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인화동 길가에 주차

이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총 4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2건이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새만금환경청은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줄음운전 등 무리한 운행 금지와 운반차량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점 홍보했다. /김민근 기자

된 트럭에서 30만원 상당의 차량 배터리 1개를 훔치는 등 지난 2월4일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차량 외부에 배터리가 있는 트럭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근 기자

“기초의원 재량사업비 폐지해야”

익산참여연대 “도의회 결정에 환영

사업비 지역민에 돌려줘야” 촉구

익산지역 시민단체가 전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익산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사업비를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년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집행되면서 선심성과 비리 문제로 도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단체장이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재량사업비 문제가 전북도의회의 결단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어떠

한 경우에도 반복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번 결정이 재량사업비에 대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후 부활을 시도한다면 도민들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전북 지역 14개 시·군에서도 재량사업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전주시와 익산시 시의원 이 재량사업비 불법운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회 차원의 사과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일탈 문제로 덮고 가려하고 있다”며 “비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모든 시군의회의가 폐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재량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결을 이유로 재량사업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민근 기자

정읍 오리농장서 화재 발생

정읍시 산외면 소재의 한 오리농장에서 불이나 오리 9,000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1일 오전 4시 18분께 발생한 화재로 농장 내 하우스 3동이 소실돼 4,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후 2시간만에 진화됐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